

불교대학을 찾아서

④ 정토불교대학

매학기 전국적으로 40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지만, 졸업생은 50명 정도만 배출하는 학교. 2년의 재학 기간동안 총 16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학교. '자원봉사', '환경교육' 분야에 집중하는 정토불교대학(회장 법륜 스님)만의 특징이다. 언제, 누구에게라도 입학 문은 활짝 열어 놓지만, 졸업만큼은 까다롭게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이미 '정토 학풍'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정토불교대학의 건학이념은 '바른 불교', '쉬운 불교', '생활불교'다. 입과 수행의 공동체를 모토로 출범한 정토회에서 설립한 만큼, '자리아타'라는 불교의 실천 덕목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충실은 '자원봉사'일 수밖에 없다.

총 4학기 2년 과정을 밟는 동안 학기당 4시간 총 1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재학생들은 사회단체 길거리 모금 활동, 사무실 당직 근무, 공양간 음식준비, 출판국 교정 업무, 통일장진 기도 동참 등 원하는 분야에서 대사회적 활동에 꼭 필요한 몸과 마음을 만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토불교대학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이란 주제의 수행론 과목과 '인류·환경·평화·복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불교와 사회' 등의 과목을 반복 수강케

한 '순환 학습(Feedback Study)'의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있다. 이런 과목은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수강이 가능하므로 '열린 교육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천 중심 교육과정은 이뿐만 아니다. 재학생은 매학기마다 확장 법률 스님과 함께 하는 1박2일 특강수련, 70% 이상의 출석 의무화, 수행체험 중심의 과제물 제출, 500배 웅맹정진, 문경에서 정토회가 진행되고 있는 자기성찰 프로그램인 4박5일 '깨달음의 장' 등을 마쳐야만, 졸업생의 자격을 얻는다. 또한 오계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삼

'자원봉사'·'환경교육' 과정 이수 의무화 특징

건학이념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부산·대구등 5곳에 분교...전국단위 교육망

귀의계'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교육보다 더 중요시한다.

강의 시간도 철저히 피교육자 중심이다. 재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수강 시간을 배려해 주간반은 전업주부, 야간반은 직장인들과 청장년층을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1991년 9월 서울 종로 대각사 불교회관에서 처음 학교 문을 연 이후, 1999년 서초구 정토회관으로 학사를 이전한 정토불교



◇입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 부설 정토불교대학. 50여 명의 재학생들이 25일 1학기를 마치며 서울정토법당원장 무병삼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본교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마산 등 5곳에 분교를 잇따라 개설, 명실공히 '전국 교육망'을 구축했다. 설립 10년 여 만에 정토불교대학은 1학기 이상을 마친 3,261명의 수료생과 4학기를 마친 408명의 정기 졸업생을 배출, '사회적 실천' 중심의 대학으로 확고

정토회관서 2년동안 우편물취급 자원봉사

17기 졸업생 성영진 봉사자



"일상의 삶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환희심까지 듭니다."

이번 학기에 서울 정토불교대학을 졸업하는 성영진 씨(39·사진)는 2년간 정토회관에서 우편물 발송 작업 등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머리를 맑게 비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는 성 씨는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남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정토불교대학 무병삼 지도법사는 "학교는 강의와 커리큘럼만 준비할 뿐, 행사 기획, 평가, 수련회 준비 등 모든 운영은 '대중주체'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배운 바를 생활화할 수 있는 '실천하는 불자'를 키워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2587-8994 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 팔 사는 이야기



<3> 룸비니의 보리수

새벽안개 속 누군가 기다리는 듯한 모습

"지금도 들판 가운데 홀로 있을..."자태 선해

을 적시고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를 향해 저는 거여이 들판을 건넌다.

며칠 후에 알았지만, 그 나무가 바로 보리수였습니다. 제 눈에는 지금도 들판 가운데 홀로 서 있을 그 보리수의 자태가 선합니다.

제 눈에 보리수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석존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의 보리수도 비로소 눈에 들어왔고, 인도와의 국경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도 거대한 보리수 그늘 밑에 자리잡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 카트만두에 와서 정확하고 보니 눈길 닿는 곳

마다 보리수가 서 있었습니까.

보리수란 석존께서 나무 밑에 좌정하여 깨달음을 얻으셨기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석존 이전에도 보리수는 못 수행자들의 거처였을 겁니다.

어찌 수행자들뿐이었습니까. 거지나, 거지 비슷한 행려들의 임시 거처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묵은 거대한 보리수들은 우람한 밑 동 사이에 헐(穴)이 있어 지금도 그 속에서 사람이 살거나 신전(神廟)을 모시기도 합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시내에서도 한 시간만 걸어도 보면 이렇듯 고목이 된 보리수를 도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리수는 시장 가는 길목에도 있고, 사원 앞 공터에도 있고, 집 앞에 내놓은 화분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는 보리수가 힌두 사원이나 불탑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트만두는 그렇듯 북반구 도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지난달부터 점자 공부 시작한 아빠

"제가 눈 될게요"

"아빠! 호영이예요. 며칠 전 밤새 아빠 '공공' 됐었잖아요. 많이 아팠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항상 병원에만 있었죠. 배에 는 붉은 띠대 같은 걸 걸어두고 연신 허 연 물을 넣고 빼곤 했었는데... 호영아 저씨처럼 통통 부은 얼굴이 가라앉아 지금은 많이 나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그러니 걱정이예요."

호영이가 아버지 원병용(42) 씨에게 쓴 마음의 일기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엄마가 저녁에 공장일 나갈 때마다 아빠 힘드니까 괴롭히지 말래요. 저번에 피자 사달라고 졸랐다가 엄마에게 무지 혼났었잖아요. 대용이 밥이나 잘

입고 운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 없었던단다.

"아빠, 알아요?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아저씨들과 같이 아우회 갔을 때, 엄청 신났었어요. 교통봉사대 아저씨들이 도와줘 몸이 건강해졌다는 13명의 아이 사진을 내게 보여주며 했던 말, 아빠 기억나요? '나누며 사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는 그 말씀요. 그 때 솔직히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4년 전부터 아빠가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급기야 합병증으로 두 눈이 거의 안보이게 될 정도로 이르러서야 아빠의 그 말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만성 신부전증 아버지 합병증...실명위기

엄청난 비용때문에 이식수술 엄두 못내

챙겨주라고 꾸중만 받았죠. 아빠! 난 요즘 은근히 화가 나요. 엄마는 제가 중학생이 됐다고 반쯤 어른 취급을 하지만, 가끔 어린 아이처럼 투정도 부리고 싶거든요."

중학생 호영이, 아직 가끔씩은 어리광을 부릴만한 나이지만, 집안 형편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빠, 사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엄마 어



◇고구려 정수왕처럼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호영이(14·사진 왼쪽)와 대용이(12·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중원고구려비' 안내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저게 부엌에서 울었어요. 오줌 누고 들 먹으러 갔다가 놀라 자빠질 뻔했었죠. 시켜면 게 응크리고 있는 것이 도둑놈인 줄 알고 '뿅' 쳤더니만 엄마더러구요. 내가 요새 들어 얼마 말 잘 안 들어서 속상해서 우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울다가 웃더라고요. 실은 아빠, 엄마가 무슨 이유를 난 잘 알아요. 작은 아버지하고 아빠의 신장조직이 같이 이식수술을 받으려 해도,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 택시 기사가 꿈이었다는 호영이, 교통봉사대 단복을

아버지의 병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너무도 잘 아는 호영이. 하얀 종이 허리춤에 걸쳐있는 짙다만 점자 틀에 눈길이 옮겨진다.

"아빠 요즘 점자 공부 시작하셨잖아요. 아빠 너무 걱정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빠의 눈이 되어 드릴게요. 근데 요새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빠가 더 이상 보지 못하기 전에 빨리 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용보다 더 작으니 어떡하죠? 그렇다고 너무 마음 쓰지는 말아요. 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요. 아빠가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던 것처럼 큰 마음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는 민조? 호영이들요."

■호영이네 집안 형편을 알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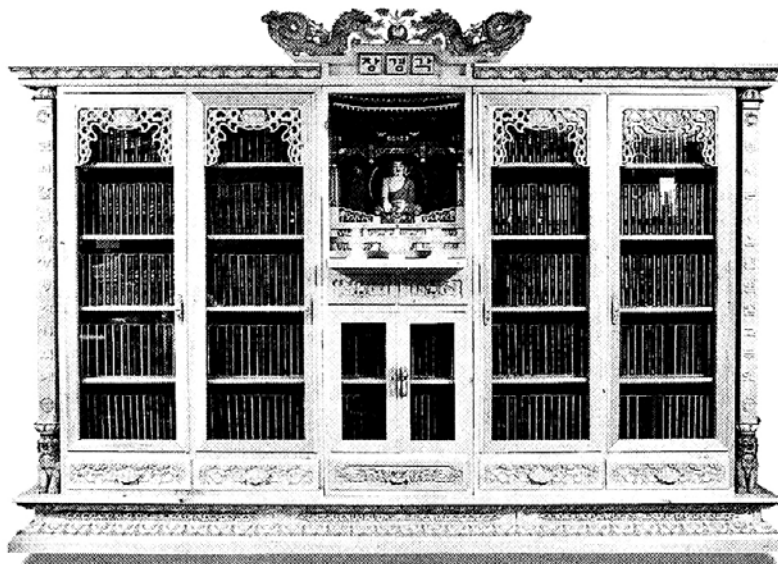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52-12 전화번호: (043854)-2159 후원계좌: 농협 417010-52-042654(예금주 원병용) 충주=김철우 기자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금)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7-8881, 02-722-4162 팩스: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탕화가 화려한 달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들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카드로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카드로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집 (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